

2020년도 하반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문화학협동과정

실적연구 콜로키움

줌 링크 : <https://yonsei.zoom.us/j/5890268988> (회의 아이디 : 589 026 8988)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진행도 병행될 수 있음. (문의 culture@yonsei.ac.kr)

10/22(목) 오후 6시

TRONGMANEETHAM PANTIT

[문화인류학 석사과정]

“Student mobility and Thai youth’s experiences in South Korea”

11/03(화) 오후 7시

김승윤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참전을 기억하는 방식 :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을 둘러싼 담론의 지형도”

12/08(화) 오후 7시

최예륜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존재론적 증거’로서 한 장애인 노점상의 삶과 죽음
- 연결망 추적하기”



10/22(목) 오후 6시

TRONGMANEETHAM PANTIT [문화인류학 석사과정]

“Student mobility & Thai youth’s experience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focuses on Thai youths who have come to Korea to pursue higher education degrees. As both undergraduate program and graduate program typically require not less than one year, studying for a degree in a foreign country can be a different time and space which students did not experience in home country. This study determines to find in what way their experiences affect their values and what they reflect on youth in Thai society as well as Korean higher education.

11/03(화) 오후 7시

김승윤 [문화인류학 석사과정]

“ 참전을 기억하는 방식: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을 둘러싼 담론의 지형도 ”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전쟁 기억을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범주들에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참전의 역사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에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았다. 에티오피아 참전에 관한 기념관이 건설되고, 참전용사와 에티오피아를 돕는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두 나라가 과거에 맺은 관계는 하나의 담론을 구성하고, 담론은 “에티오피아”라는 상상의 지리(imagined geography)를 생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참전용사 담론의 지형도를 소묘하여 상상의 지리 에티오피아를 분석한다. 나아가 국내의 에티오피아 이주민에게 중요한 장소인 A 식당에서 진행한 현지조사를 활용하여, 담론이 말하지 않는 기억과 역사를 포착한다. 이러한 시도는 상상의 지리를 에티오피아의 더욱 복잡한 역사적 맥락 위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또한, 이는 전쟁과 냉전을 기억하는 데 동원되는 한국 사회의 인식론을 재검토하여 자유/공산의 이분법으로 구성되는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다.

12/08(화) 오후 7시

최예륜 [문화인류학 석사과정]

“‘존재론적 증거’로서 한 장애인 노점상의 삶과 죽음 – 연결망 추적하기”

본 발표에서는 1995년 인천 아암도에서 있었던 한 장애인 노점상의 의문사 사건을 둘러싼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빈곤과 불평등에 처한 사람들의 삶과 투쟁, 죽음은 사회적 규범이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사건은 대규모 갯벌매립개발사업에 얽힌 여러 행위자들의 갈등과 경합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으나,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서 다뤄지기보다는 풍요로워지고 ‘민주화’된 세계에서 ‘인권’과 ‘관용’의 대상이 되거나 지나간 과거사로 남겨져 있다. 가난하고 차별 받는 이들의 존재가 과거의 폭력과 억압의 피해를 증명하는 ‘재현적 증거물’로서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순과 제약 속에 이어지는 삶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연결성과 현재성을 찾기 위한 지식 생산 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서로 다른 존재들인 여러 행위자와 연구자, 그리고 독자들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탐색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참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류학 방법론을 가능한 한 펼쳐보고 연결망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본 발표의 목표이다.

줌 링크 : <https://yonsei.zoom.us/j/5890268988> (회의 아이디 : 589 026 8988)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진행도 병행될 수 있음. (문의 culture@yonsei.ac.kr)

